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5일 목요일 음 2월 13일 (5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대체로 구름 많고, 낮 기온은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C 내외, 낮 최고기온은 18-19°C로 전망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precipitation percentages for various weather typ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06:31), 해질 (18:49), and moonrise (02:13) times.

Table with 3 columns: 내일, 맑음, 10/20°C and 모레, 흐리고 비, 12/20°C.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관심) and 감기가능지수 (보통).

월드뉴스

애틀랜타 이어 콜로라도 학살 '충격'

범행 엿새 전 무기 사들여

미국 콜로라도주 총격범 아흐마드 알리사(21)가 AR-15 계열의 돌격용 반자동 소총을 사용해 경찰관 1명 등 모두 10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되고 있는 총격범 알리사.

알리사는 또 총격 사건 엿새 전에는 '투격 AR-556' 권총을 샀다.

피의자 로버트 에런 톰은 21살로, 두 사람의 나이도 같다.

총기 구매 시점은 공교롭게도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애틀랜타 연쇄 총격이 알리사의 범행에 직간접적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알리사 체포 진술서가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알리사가 범행 당시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노인을 확인 사살했다는 사실도 진술서를 통해 확인됐다.

진술서에 따르면 알리사는 22일 콜로라도주 불더의 '킹 슈퍼' 식료품점에서 총기를 난사했을 때 검은색 AR-15 계열 반자동 소총과 반자동 권총으로 중무장했다.

또 알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수기동대(SWAT)는 콜로라도주 총기 난사로 희생된 에릭 탤리 경관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것을 확인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애틀랜타 총격사건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정보, 인터넷 서비스 URL, 구독신청/배달료, 1989년 4월 22일 창간 등 상세 정보.

목요담론



이 경 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언제부터 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잘못을 했어도 모르고 한 경우에는 용서해 주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한 경우에는 "몰랐다"라는 항변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일반인들이 잘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몰랐다는 변명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변명

할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 의무가 있고, "몰랐다"라는 변명으로 용서를 구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를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려는 의지나 실행이 부족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 민원인의 사실 주장에 대해 사실조사를 외면하거나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공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일정한 직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행정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모든 행정권 행사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도 행정권이 행사될 수 있는데, 공법상 계약체결이나 행정지도를 하는 것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공무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행정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이며, 소극적으로 행정을 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

인하는 것이다.

행정권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적인 근거없이 처분·명령 등의 규제적인 권한이나 강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활용하거나 이해관계인들의 자율적인 해결을 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에는 법적 근거를 따져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손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늘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도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열린마당

서해수호의 날과 우리의 책임



김 달 수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

부드러운 바다 바람과 돌아오는 새까은 계절의 여왕임을 알리고 있다. 특히 3월이 되면 마음이 경건해지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을 생각하게 한다. 3월은 3·1절 기념일과 3월 8일과 15일 민주주의 기념일이 있는 의미있는 달이며, 3월 넷째 금요일은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호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할 날이다.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을 3월 넷째 금요일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이유는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6명 전사),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46명 전사),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23일, 2명 전사) 등 북한의 서해도발에 맞서 당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온 국민이 함께 추모하기 위한 것이며, 국군장병의 희생이 가장 많

던 천안함 피격일(2010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3월 26일 행사는 코로나-19 상항으로 축소돼 실시(주요기관장, 보훈·안보단체장, 재향군인회원 등 100명만 참석)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향군인회가 주관해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되새기는 추모행사를 실시한다.

언제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이 항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그날을 잊지 말고 오늘과 내일의 안보를 생각해야 하겠다.

"보훈은 나라의 보훈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한 이들을, 남겨진 이들이 잇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엔 나라가 그들에게 잊혀질 것이다.

제6회 서해수호의 날에 즈음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함께 추모하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결집해야 할 시기이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울타리가 되고 제2안보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주차환경문화



좌 길 훈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 대수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점점 주차할 자리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차량 대수는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 주차에 주차문제로 인한 다툼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주변 나라 일본에서는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에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실시한 바 있고 현재는 완전하게 정착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과금 효과도 크다. 도로나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없어 교통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및 주차 환경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또한 주차문화에 대해 크게 개선됐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가 2007년 2

월 처음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고 시행중이며 이와 더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란 서귀포시에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주소지에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주차면을 조성하는 보조사업이다.

현재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 증명 T/F팀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단독·공동주택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에서 근린생활 시설까지 확대되고 담장 철거비만 지원하던 항목에 화단, 경계석 등 지원 항목이 추가 신설돼 시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관련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에서 자기차고지 갖기 신청공고를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차고지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다. 보다 더 나은 편리한 삶과 주변 주차환경개선까지 고려해 볼 때 이번 기회에 자기차고지를 조성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Citizens' Affairs' (시민장 의 사)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gwipo Citizens' Affairs Office.

Advertisement for 'Jeju Natural Landscaping' (제주자연조경) featuring a photo of a garden and a list of services like indoor landscaping and plant care.